

전세계 ‘델타 변이’ 비상...정은경 “국내는 유입 초기 단계”

역학적 관련자 포함 감염자 256명...지역감염 사례 합평 등 3건
알파변이보다 전파력 강해...해외유입 차단, 국내확산 방지 강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국내 상황은 ‘유입 초기’ 단계라고 진단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24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델타 변이가 190건이 확인됐고 지역감염 사례가 3건 보고돼 유입의 초기 단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이어 “전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해외유입 차단과 국내확산 방지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델타 변이는 현재 영국과 미국 등 80여개국에서 확산하고 있다. 방대본에 따

르면 지난주 러시아 모스크바에선 신규 확진자의 90%가 델타 변이 감염자로 확인됐고, 영국은 신규 확진자의 99%가 델타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국에서는 2주마다 델타 변이 감염자가 배로 증가하면서 감염자 비중이 20%까지 오른 상태다.

델타 변이는 스파이크 단백질 유전자에 주요 변이가 두 개(E484Q, L452R) 있어 ‘이중 변이’로도 불리고 있다. 바이러스는 스파이크 단백질을 이용해 숙주 세포로 침투하기 때문에 이 단백질 유전자의 변이가 바이러스 감염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최근의 해외연구 결과를 보면 델타 변이는 기존 바이러스는 물론이고 알파 변이보다도 전파력이 강해

실내에서는 60%, 실외에서는 40% 정도 전파 속도가 빠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지난 22일 기준으로 총 190명의 델타 변이 감염자가 확인됐다. 이들과의 접촉력 등 역학적 연관성 있는 확진자 66명까지 합치면 256명이 델타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사회에서는 합평군 의원 관련, 인천공항 검역소 관련, 인천 남동구 가족 및 학교 관련 집단발병 사례에서 델타 변이가 확인됐다.

정 본부장은 “아직 국내에서 델타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기는 하지만 유입이나 전파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상황”이라면서 “계속 감시나 분석을 하고 위험도가 높아질 경우 그에 맞는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델타 플러스 변이’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24일 광주 북구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에서 보건소 의료진들이 백신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슬기로운 귀어·귀촌생활’ 전남도, 25~27일 서울서 박람회

온·오프라인 진행...도시민에 정책·프로그램 안내

전남도가 전남귀어귀촌지원센터, 시군 등과 함께 25일부터 3일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는 ‘2021 귀어·귀촌 박람회’에 참가해 도시민 어촌·유지 활동을 펼친다. 전남 귀어인은 2017년 285가구 418명에서 2018년 322가구 449명, 2019년 358가구 487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번 귀어·귀촌 박람회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수도권 도시민과 직접 만나 전남의 귀어·귀촌 정책과 프로그램을 알릴 예정이다. 그동안 코로나19 장기화로 대규모 행사보다는 사이버 박람회·설명회, 소수 어촌계 체험활동 중심으로 귀어·귀촌 유지 활동을 펼쳤다.

이번에는 귀어·귀촌 관련 전남지역 기관과 함께 어수 안포·화대, 진도 신기 등 우수 어촌계와 지난

2019년 영광 구수·대신 어촌계로 정착한 우수 귀어인 장문석 사무장 등이 참석해 부스를 찾는 도시민과 상담에 나선다. 또 16개 시군 귀어·귀촌 지원 정책을 담은 홍보전단, 전남 우수 어촌계를 홍보한 신문, 전남 우수 귀어인의 경험담을 적은 책자 등도 배포해 전남으로의 귀어·귀촌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전남귀어귀촌지원센터와 함께 지난 5월 10일부터 6월 4일까지 진도 신기, 여수 안포, 영광 구수대신, 장흥 수문, 순천 와온, 함평 석두 어촌계에서 도시민 30명이 참여해 3박 4일간 어촌에서 보내는 ‘전남 어촌 탐구생활’을 진행했다. 이번 귀어·귀촌 박람회에서 상담할 도시민 가운데 귀어를 바라는 적극적인 의사가 있으면 하반기 전남 우수 어촌계에서 3박 4일, 한 달 등을 보낼 수 있는 프로

그램에 참여시킬 방침이다.

강성운 전남도 해운항만과장은 “전남 어촌은 도시민에게 과감히 그 장벽을 낮추고 있고, 어촌 뉴딜 300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새 희망을 볼 수 있는 잠재력 있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며 “도시민이 전남 어촌을 보다 쉽게 찾도록 다양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안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귀어·귀촌 박람회는 해양수산부 주최 한국어촌여객공단 주관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진행한다. 지자체관, 귀어귀촌지원센터, 귀어타터 상담관, 신기술체험관, 스마트관, 청년창업관 등 다양한 주제를 선보인다. 여기에 어촌 체험마을 살아보기 공모전, 토크콘서트, 강연 등 특별프로그램도 준비돼 귀어·귀촌을 고민하는 도시민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 소 브루셀라병 확산

11개 농가 518두 살처분

전남 축산농가에 소 브루셀라병이 확산해 가축방역당국이 비상에 걸렸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현재까지 11개 시군 74농가에서 소 브루셀라병이 발병했다. 시군별로는 무안 45농가, 나주 9농가, 신안 5농가, 함평 4농가, 영암 3농가, 담양·영광 각 2농가, 고흥·화순·해남·장성 1 농가씩이다. 이로 인해 살처분된 소는 모두 518두다. 감염된 소는 모두 한육우로 조사됐다.

소 브루셀라 감염은 지난해 크게 변했다. 2019년에는 6농가 122마리였는데 지난해 87농가 535마리로 늘었다. 올해는 발생 속도 등을 고려하면 감염축 발생이 예년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전남도, 초강력 레이저센터 유치 초석 다져

타당성 분석 용역 중간보고회, 전문가 의견 수렴

지난 2020년 충북에 밀려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유치에서 고배를 마신 전남도가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관련 전문가, 연구기관 등과 연계를 통해 당위성을 강조하는 한편 용역을 발주해 필요성과 향후 발전 가능성 등을 제시하고 나섰다.

전남도는 24일 도청에서 레이저 관련 대학·연구기관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 타당성 분석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보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대형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의 필요성, 중점 연구 분야, 국내외 사례 등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레이저를 활용한 기초과학 및 원천 기술 연구의 중요성, 레이저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특히 “기초과학 연구 분야와 산업융합 활용에서 좀 더 자세한 분석 및 자료조사가 필요하고, 해외 성공사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남도는 보고회에서 제시된 발전방안을 용역에 반영하고, 필요하면 정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계획을 마련,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전남 유치에 발 벗고 나서기로 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전남도와 한국에너지공단, 나주시가 공동 추진, 오는 8월 완료된다. 지난 3월 착수보고회 이후 내실있는 용역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 인터뷰, 기업 면담, 자문회의 등을 수차례 가졌다.

이밖에 지난 6월 전남도·대학·연구원 등 10개

기관이 함께 레이저 기술 발전을 위한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 업무협약을 맺었다. 세계 레이저 기술시장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117억 달러(13조8000억원)였던 것이 오는 2025년 176억 달러(20조8000억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하지만 국내에선 레이저 핵심부품 대부분 수입하고 있어, 전후방 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레이저 기술의 국산화가 시급하다.

연구시설이 구축되면 극한과학 및 에너지 과학 기술 연구, 산업용 레이저 분야 핵심소재 및 부품 국산화, 레이저 전문인력 양성, 레이저 연구 국제 협력 등 역할을 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고 명노근·표정두·정광훈 국민 훈장 추서

‘민주 유공자’ 모란장 수여

명노근 전 전남대 교수와 표정두 열사, 정광훈 전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등 3명에게 24일 국민훈장이 추서됐다. 이날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이들에 대한 국민훈장 전수식이 열렸다. 고인이 된 포상자들을 대신해 유족이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정부는 제34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일에 맞춰 민주 유공자 29명을 선정했지만,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정부 기념식에서 5명만 포상하고 나머지 포상은 6개 광역 지자체장이 하도록 했다.

명노근 교수는 ‘민주화운동은 지식인의 중요한 책무’라는 신념에 따라 민주화 운동에 헌신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다. 표정두 열사는 고등학생 신분으로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으며, 내각제 개헌 반대, 장기집권 반대 등 구호를 외치며 분신했다. 정광훈 의장은 농민운동, 민주화 운동으로 세 차례 옥고를 치르며 농민의 권익 보호와 사회운동가 양성 등에 힘썼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독재와 불의에 맞선 용기와 연대의 정신을 이어받아 민주주의와 인권 가치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절대 선 수 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24시간 상담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나주 요양병원 「급 매 매」

토지면적 | 10,162㎡

건물면적 | 7,296㎡ (총 3동)

▶1동(2017년 준공) : 3,507㎡

- 지하 1층 ~ 지상 4층
- 베드 수 : 200베드

▶2동(2012년 준공) : 2,336㎡

- 지상 1층 ~ 지상 4층
- 현재 주간 요양 보호 30명
- 요양원 90명
- 추천용도 : 암 병동 또는 치매 병동

▶3동(2008년 준공) : 1,453㎡

- 지상 1층 ~ 지상 3층
- 현재 장례식장 운영 중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매매가격 | 118억원

상담문의 | 010-3605-8564 (임선희)

나주시 우정로 56
리치타워 A동 101호

전남공인중개사

졸업앨범을 찾습니다

(통합34회)
**전남여고8회
졸업생 앨범**

앨범을 보관하고 계신 분은
연락주시면
감사의 표시를 하셨습니다.

010-9989-7465

흡수합병공고

(채권자 이외 주권제출공고)

주식회사 동원건설(이하 "갑"이라 칭한다)과 주식회사 천원건설(이하 "을"이라 칭한다)은 2021년 06월 23일 각각 회사에서 개최된 주주총회 결의로 "갑"은 "을"을 흡수합병하고, "갑"은 "을"의 모든권리와 의무를채를 승계하고 존속하며,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흡수합병결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제회사에 이의를 제출하고 주주는 주권을 제출하여 주식이 바라며, 이의가 없으면 흡수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함을 공고 및 최고합니다.

2021년 06월 25일
1. (갑) 상 호 : 주식회사 동원건설
주 소 : 전라남도 곡성군 오곡면
기차마을로 260
대표이사 : 양승복
2. (을) 상 호 : 주식회사 천원건설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금와로 489
2층(동성동)
대표이사 : 양승복

산행안내

6월27일(일)
▲광주Kj산악회 6월27일(일)
경남 밀양, 구만산785m&구만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9년

光
州
日
報
·
제
남
일보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여행구독

(062)220-0550

폭포, 가인계곡 산행, 업무제
육관 07:00, 동아병원 07:05,
롯데백화점 07:10, 광주역
07:15, 문예후문 07:25, 비엔주
차장 07:30 * 다음카페 광주
Kj산악회 ☎ 010 7794 6920